

**연구와 전시**

삶의 흔적, 역사가 되다 | 선사·고대관 재개관

펼치면 박물관이 보입니다 |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출판물

상형청자,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 | 특별전 연계 라운드 테이블

**기억의 서랍**

지역과 함께 성장한 국립박물관의 기록

**사람과 이야기**

광활한 네트워크에서 만난 황금의 나라 | 신라 보물, 실�크로드를 잇다

박물관을 배우다, 박물관을 꿈꾸다 | '뮤지엄 아카데미' 참가자 인터뷰

기록과 기억, 마음을 엮어내다 | 국립대구박물관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 박물관신문





04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재개관



20

꽃과 나비 花蝶圖



10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이 펴낸 출판물



26

영국박물관 특별전 〈실크로드〉속 신라

연구와 전시

- 04 전시  
삶의 흔적, 역사가 되다
- 10 2024년 국립박물관 출판1  
펼치면 박물관이 보입니다
- 14 학술  
상형청자,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
- 16 전시  
참방참방~ 획획! 문방사우와 함께 신나게 놀자
- 18 전시  
아이도 어른도 모두 모이는 곳, '강원 문화유산 모두 모여라!'

사람과 이야기

- 20 잠시 멈춤  
삼월 삼짇날에 보는 나비점
- 22 기억의 서랍  
지역과 함께 성장한 국립박물관의 기록
- 26 K-뮤지엄  
광활한 네트워크에서 만난 황금의 나라
- 28 인터뷰  
박물관을 배우다, 박물관을 꿈꾸다
- 32 출판  
기록과 기억, 마음을 엮어내다
- 34 주요 소식
- 36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 38 굿즈
- 39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5년 3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흥인 류정환 이민수 이진민 이태희  
이현주 전인지 최성애 황은순 황지현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제호 최순우  
디자인 큐라인  
사진 박재홍  
인쇄 (주)태광피엔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43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 삶의 흔적, 역사가 되다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재개관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이 오랜 기다림 끝에 문을 열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228일간 닫혀 있다가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부여·삼한시대, 고구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단장한 선사·고대관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 어떻게 바뀌었을까?

선사·고대관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전시실이다. 구석기시대부터 고구려까지 방대한 역사를 다루는 만큼 전시품의 수량도 다른 전시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기존 선사·고대관은 이처럼 방대한 전시품을 객관적으로 구성해 전달하려 하였기에 관람객의 흥미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객관적 구성과 함께

인류의 등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도구의 사용과 그로부터 비롯된 삶의 변화를 그림과 영상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득히 먼 구석기시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삶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번 선사·고대관을 관통하는 큰 주제를 알리고자 했다.

또한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가장 관심이 컸던 고구려실의 면적을 1.7배로 확대

하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전시를 연출하여 관람객들이 전시를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상설전시실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전시실을 찾는 어린이들은 곳곳에 설치된 배움 공간과 촉각체험물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직접 만져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듯 쉽고 친절한 설명 체계를 구성해서 관람의 효율과 흥미를 높였다



전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그래픽을 대폭 확충하는 등 연출 기법을 고도화했다

## 달라진 전시실 모습은?

전시실에 들어온 관람객은 도입부 공간에서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된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에 등장한 검은 돌기둥 모노리스Monolith를 연상시키는 이 벽에는 46억 년에 달하는 방대한 지구의 역사와 그 긴 시간 속 일부에 불과한 인류의 시간을 담았다. 인류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작은 흔적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되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인류의 시간을 만난 관람객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도입부의 공간은 모든 시대와 닿아 있는 광장이기도 하다. 당연히 구석기시대로 발걸음을 옮겼던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도입부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선사 영역 전시와 고조선·부여·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영역 전시를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다.

##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 인류의 적응이 담겨있는 선사

선사 영역의 전시는 구석기시절부터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구석기시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찾아왔던 혹독한 시기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뎀석기가 있다. 구석기시절 전시에 대한 고민은 길가에 흔히 보이는 돌과 석기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부터 시작했다.

또 쉽게 상상하기 힘든 석기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기에 구석기시절과 신석기시절은 다른 전시실보다 설명 그래픽과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

특히 신석기시절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신석기시대의 인류는 따뜻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토기를 생산하는 등 점차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일어난 큰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부산 동삼동 패총 토층에 대한 투사 영상, 신석기시대 사람이 묻혔던 가덕도 무덤 연출 등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류의 모습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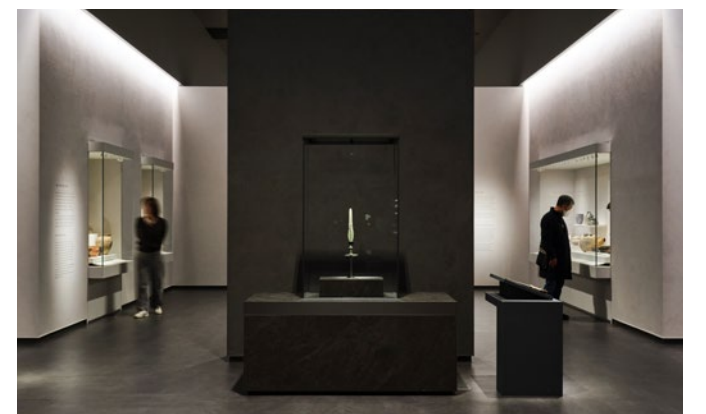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구석기시대.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신석기시대를 거쳐 인류는 금속을 사용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어냈다. 청동기시절은 최초의 금속인 청동을 사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 고인돌의 존재로 알 수 있는 사회 지도자의 등장과 마을, 집단의 성장이 있었던 역동적인 청동기시대를 청동기 제작 영상과 대표 전시품 <농경문 청동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구석기시절  
그렉 보웬 발견 주먹도끼  
1978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



신석기시절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  
제주 고산리 유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패널과 촉각체험물을 곳곳에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배움 공간도 상설 전시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구석기시일부터 청동기시일까지의 선사 영역 전시에서는 현대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각 시대의 주요 장면을 입체로 재현하여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관람객은 각 실 한 켠에 자리 잡은 이 공간에서 선사시대를 살았던 과거의 우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고조선에서 고구려까지, 역동적이고 낭만적인 열정의 시대를 담은 고대

고대 영역 전시는 고조선·부여·삼한실부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사회 변화가 국가의 등장으로 이어져서 크고 작은 나라가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발전하던 때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청동기들을 집중 전

시하였다. 아울러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등장한 여러 나라, 부여·옥저·동예와 낙랑 문화를 소개하고 한반도 남쪽의 마한·진한·변한의 발전상을 다루었다. 특히 이 시기의 대표 전시품인 창원 다호리 1호분의 통나무 목관의 제작과 설치 과정을 다룬 정보 영상을 제공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개편 전시의 마지막은 고구려실이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위상이 비해 기존의 고구려실 전시는 다소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남한 지역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렇게 많이 축적된 자료들을 전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수집 자료들 또한 이번 고구려실 전시에 적극 활용하였다. 온전하게 확인

된 연천 무등리 보루 출토 고구려 장수의 갑옷은 처음으로 상설전시에 출품되어 그 의미가 크다. 관람객 선호도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높았던 고구려 무덤 벽화 모사도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디지털 실감영상관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2024년 디지털로 복원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또한 고구려실 전면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 그 외 작지만 큰 변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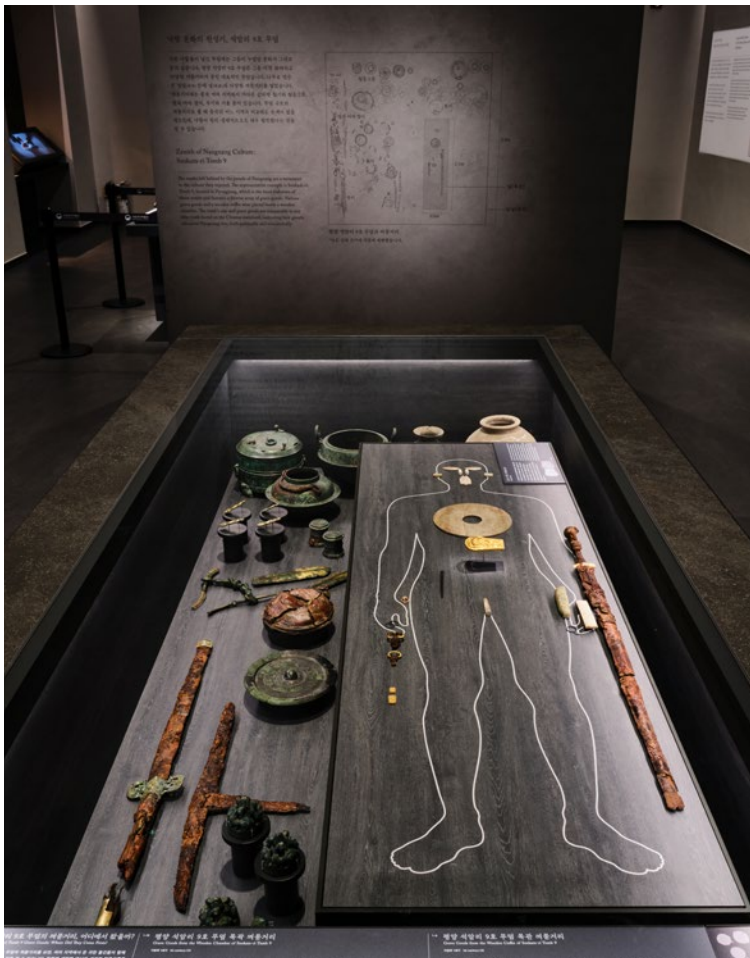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전시실 설명글 전체를 전 연령대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표현한 것이다. 설명글을 쓴 각 전시실의 담당자들은 ‘더 쉽게, 더 풀어서’를 입에 달고 다니며 서로가 쓴 원고를 돌려보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운 설명글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고학 전시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패널과 촉각체험물도 곳곳에 설치하여 박물관 전시 관람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 공간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선사 고대 각 2곳씩 모두 4곳에 마련된 공간에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을 체험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전시실에서 만난 과거의 인류가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개편을 맡은 담당자들은 역동적이고 치열했던 먼 옛날의 삶의 흔적을 담고자 했다. 그 흔적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우리 삶으로 이어졌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선사·고대관과의 만남이 내일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본다.



광개토대왕릉비 원석탁본(디지털 복원본) 전용 공간. 고구려실은 새로운 발굴 자료를 대폭 전시하여 흐름과 구성을 보강했다



낙랑 문화를 보여주는 평양 석암리 9호 무덤의 꺼묻거리. 우리 땅에 있었던 고대문화를 모두 담아내려 노력했다

글. 김태영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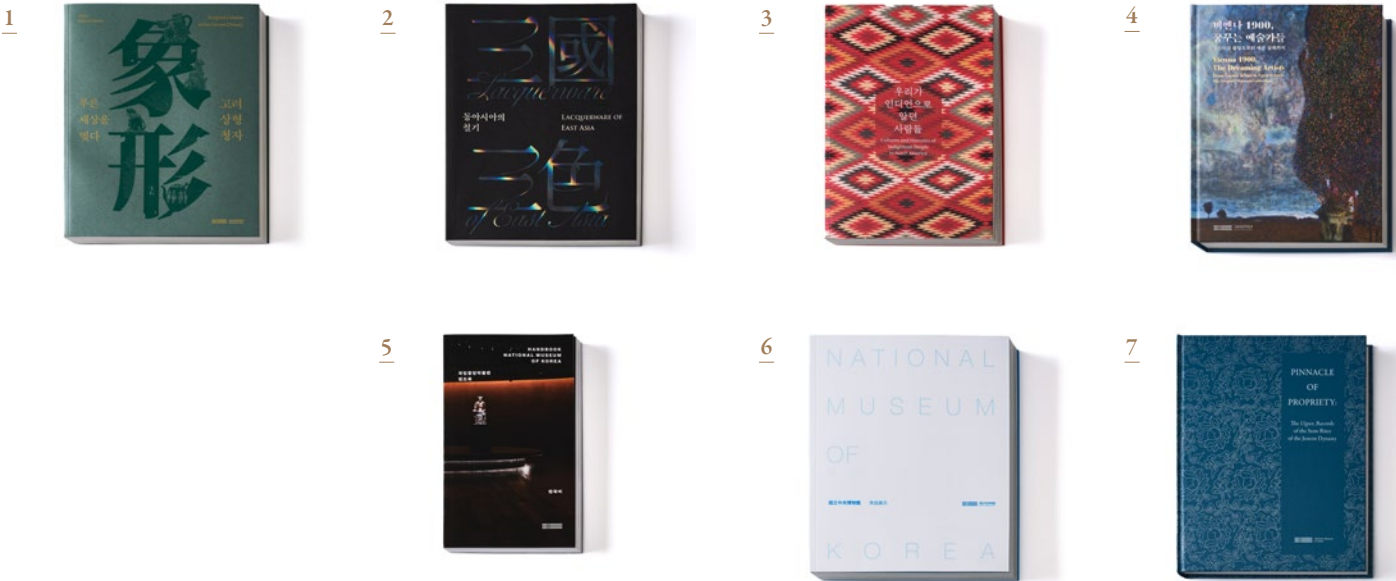




펼치면 박물관이 보인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출판1

한 해 동안 발간된 출판물을 한자리에서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크다. 전시에서 다룬 국내외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도록뿐만 아니라, 꾸준히 이어온 연구조사의 결과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학술지를 종합하여 새롭게 출발한 통합 학술지와 독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기획 단행본을 발간한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출판물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자.



전시 도록

- 1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11.26.~2025.3.3.)의 전시 도록으로 2024년 11월 22일 발간하였다. 고려가 이룩한 청자 문화의 정점인 상형청자를 조명하고 역사와 문화사적 맥락을 짚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름다운 상형청자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세상과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0건을 포함한 270여 건의 도판, 전시 구성과 해설, 관련 전문가 칼럼 4건을 수록했다. 특별전의 기획과 구성, '고려의 푸른 세상 상형청자'에 대한 기획 글과 참고문헌 등 전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280×225mm | 256p | ₩30,000 | ISBN 978-89-98234-81-2(93630)
- 2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

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2024. 7.10.~9.22.)의 전시 도록으로 2024년 6월 28일 발간하였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예품인 칠기를 공통 주제로 하여 14~19세기 한·일·중 삼국에서 제작한 나전칠기, 마키에 칠기, 조칠기 전시품 46건에 대한 고화질 도판과 함께 섬세한 해설을 실었다. 또한 동아시아 칠기 제작 전통에 대한 개관글 1편, 나라별 칠기 특징의 이해를 돕는 테마글 3편, 나전칠기 무늬와 제작 기법에 대한 칼럼 2편을 수록하여 전시 내용과 전시품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280×225mm | 180p | ₩27,000 | ISBN 978-89-98234-78-2
- 3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중부의 대표 박물관인 덴버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2024.6.18.~10.9.)의 전시 도록으로 2024년 6월 14일 발간하였다. 덴버박물관의 특색 있는 북미 원주민 소장품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북미 원주민의 공예, 회화, 사진 등 151점 전시품의 도판과 해설, 기획자의 서문, 전문가 칼럼 12편을 수록하였다.

180×260mm | 248p | ₩29,000 | ISBN 978-89-98234-76-8
- 4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오스트리아 레오폴트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2024. 11.30.~2025.3.3.)의 전시 도록으로 2024년 11월 28일 발간하였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비엔나를 무대로 자유와 변화를 꿈꿨던 독창적인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미술을 조망하는 레오폴트미술관의 회화, 드로잉, 조각, 가구,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재질의 전시품 191점을 소개하였다. 전시품 191점의 도판과 해설, 기획자의 서문, 논문 2편을 수록하였다.

220×280mm | 328p | ₩39,000 | ISBN 978-89-475-4986-8
- 5

**국립중앙박물관 핸드북**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인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142건을 엄선해 수록한 전시 안내서
- 6

**国立中央博物館·常設展示**

2017년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종합 도록 일문판의 개정판으로 그간의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성과를 반영해 2024년 12월 27일 발간하였다. 상설전시관의 주제별 또는 실별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수록하였으며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전시한 '사유의 방',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세계 문화관'에 이어 2024년 신설된 '외규장각 의궤실'을 소개하였다.

210×260mm | 380p | ₩50,000 | ISBN 979-11-93060-10-0
- 7

**Pinnacle of Propriety: The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2022.11.1.~2023.3.19.) 전시 도록의 영문판으로 2024년 2월 28일 발간하였다. '의궤(儀軌)'는 '의식의 궤범(軌範)'으로서 조선이 만세(萬世)의 모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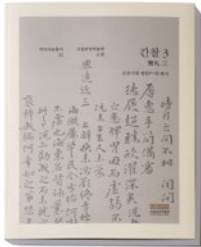
10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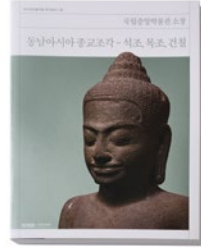
11



12



13



17



18



19



20



범으로 삼고자 한 통치 철학과 의례 경험에 담겨 있다. 고귀한 품격과 조선 문화 역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이 찾아낸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심도 있는 전문가 칼럼 3편도 함께 수록하였다.

225×290mm | 232p | 비매품 | ISBN 978-89-8164-269-3

- 8 **Wise and Unbiased: Royal Philosophy in Paintings and Calligraphy of the Joseon Dynasty**
- 특별전 〈당탕평평-글과 그림의 힘〉(2023.12.8.~2024.3.10.) 전시 도록의 영문판으로 2024년 12월 19일 발간하였다. 영조 즉위 300주년을 맞아 탕평을 이룩하기 위해 글과 그림의 활용 양상을 설명하는 글과 전시품 56건의 도판, 전시품 관련 전문가 칼럼 4건을 수록하였다. 전시품의 한문 원문 및 번역문, 참고문헌 등 전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30×305mm | 256p | 비매품 | ISBN 978-89-8164-282-2

## 학술지

- 9 **박물관과 연구 제1집, 제2집**
- 박물관 소장품 및 활동에 기반한 학술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2024년 창간해 매년 2회(6월, 12월) 발간하고 있다. 2024년 6월 20일과 12월 21일 제1집과 제2집을 각각 발간하였다. 고고·미술사·역사·다양한 세계 문화·박물관교육 등 박물관 분야의 연구논문을 담고 있다. 학술지는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성되며 제1집은 '고구려 무덤, 장무이묘를 다시 보다'를 주제로 기획논문 5편, 일반논문은 고고학 3편, 미술사학 2편, 역사학 1편, 박물관학 2편을 실었

다. 제2집에는 '박물관 접근성 향상: 관람객 경험 확장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기획논문 4편과, 일반논문으로는 고고학 2편, 미술사학 2편, 역사학 1편, 박물관학 1편 등 총 6편을 실었다.

제1집 210×280mm | 연 2회 | 370p | 비매품 | ISSN 3058-2601  
제2집 210×280mm | 연 2회 | 343p | 비매품 | ISSN 3058-2601

- 10 **박물관 보존과학 제31집, 제32집**
-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방법 및 과학적 분석, 제작 기법 등을 연구한 논문과 자료를 수록하여 연구 성과 공유와 문화유산 보존에 활용하고 있다. 매년 2회(5월, 11월)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30일과 11월 30일 발간하였다. 제31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석사 괘불〉의 바탕직물과 채색 특성」 등 총 4편의 논문과 1편의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제32집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여래입상(구9708)의 제작기술」 등 연구논문 8편을 실었다.
- 제31집 218×304mm | 연 2회 | 110p | 비매품 | ISSN 1229-5191  
제32집 218×304mm | 연 2회 | 170p | 비매품 | ISSN 1229-5191

## 보고서와 자료집

- 11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제11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5』**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미술품 조사 성과를 소개하는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시리즈의 11번째 발간물로 2024년 12월 20일 발간하였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덕수21)과 〈목조지장보살좌상〉(덕수1980) 등 조선시대 불보살상 2건에 대한 정밀 실측 도면,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미지 분석, 복장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미술사적 종합 고찰 등을 수록하였다.

280×220mm | 356p | 비매품 | ISBN 978-89-8164-283-9  
(93620) 978-89-8164-081-1 세트

- 12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4집 『서화』, 제15집 『서화II』**
- 2024년 12월 20일 발간하였으며 조선시대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기증 서화류를 조사하여 수록했다. 제14집에서는 기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인 산수·인물화를 중심으로 265건 1,146점을 수록했으며,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보 1건, 보물 2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15집에서는 화조영모, 사군자, 초상, 채색장식화 등 다양한 화목의 그림 총 403건 1,576점을 수록했다. 서화의 범주에서 판화와 자수를 함께 실었으며 서예와 중국, 일본회화도 포함했다. 각 권의 '기증 서화의 현황과 의의'에서 기증품의 주제별, 시대별, 재질별 현황을 정리하여 기증 서화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다.
- 제14집 | 210×290mm | 296p | 비매품 | ISBN 978-89-8164-284-6(94600)  
제15집 | 210×290mm | 296p | 비매품 | ISBN 978-89-8164-245-7(94600)

- 13 **아시아미술자료 조사보고 제1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남아시아 종교조각-석조, 목조, 건철』**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남아시아 소장품의 조사 성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2024년 12월 13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미술 조사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아시아 미술자료 조사보고'라는 체계 하의 첫 번째 발간물이다. 〈여신〉(구4431) 등 9건 9점의 동남아시아 석조, 목조, 건철 불교조각 및 힌두교 조각에 대한 상세 설명, 고화질 사진 및 컴퓨터 단

층촬영(CT)과 X선 촬영(X-ray)으로 밝혀낸 제작 기법과 성분에 대한 고찰을 수록하였다.

280×225mm | 192p | 비매품 | ISBN 978-89-8164-279-2

- 14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
-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금속, 도자기, 목재 등 대표적인 재질의 소장품 13점에 대한 내부 구조, 제작 기술, 그리고 다른 다양한 특성들을 수록하였다. CT의 원리, 문화유산의 재질 및 방사선에 대한 칼럼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사진, CT 이미지와 3D 이미지 등 과학적 조사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감기법, 내부 용량, 사용된 재료의 두께, 기공 분포 등 제작기법의 여러 특징을 새롭게 밝혔다.
- 220×280mm | 220p | 비매품 | ISBN 978-89-8164-287-7

- 15 **역사자료총서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간찰 3-조선시대 명인의 편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의 조사 성과를 수록하는 역사자료총서 22를 2024년 12월 20일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간찰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자료집으로 이항, 허목, 송시열, 윤증, 이하응 등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아우르는 조선시대 명인 50인의 간찰 77건 83통의 도판, 탈초 원문, 번역, 해설과 해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 220×280mm | 230p | 비매품 | ISBN 978-89-8164-286-0

- 16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제54집 『황해도 장무이묘』**
- 일제강점기인 1911~1912년 발견 및 조사가 이루어진 황해도 장무이묘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2024년 12월 20일 발간하였다. 장무이묘는 발견 당시부터 피장자의 이름과 직책, 축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전이 출토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한 이 보고서는 2023년부터 이루어진 국립중앙박물관과 고고학, 역사학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출토 자료에 대한 재검토로 장무이묘의 축조 시기나 축조 집단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85×220mm | 305p | 비매품 | ISBN 978-89-8164-281-5

- 17 **2024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심포지엄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문 4편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박물관 교육’, ‘학교의 다문화 교육과 박물관 교육의 연계’, ‘상호문화 교육을 잇는 박물관 교육’, ‘다문화 감수성 확장을 위한 도시역사박물관의 역할’과 토론문 1편을 수록한 심포지엄 자료집이다.
- 190×257mm | 48p | 비매품

- 18 **어린이박물관 전시 개편-문화유산 속 마음**
- 어린이박물관 전시 개편과 연계해 어린이의 문화유산 접근을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1월 11일 발간하였다. 문화유산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콘텐츠와 체험을 내용으로 한 활동자료로 문화유산을 감상하며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 현대적, 디자인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개성 있는 콘텐츠 14종으로 구성하였다.
- 217×275mm | 56p | 비매품 | ISBN 978-89-8164-277-8

- 19 **2023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자료집 8**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어린이박물관과, 고객지원팀에서 운영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에 창간하여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2024년에는 11월 27일 발간하였다. 자료집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문화 소외 계층,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별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사진, 활동지 및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 220×290mm | 175p | 비매품 | ISBN 978-89-8164-278-5

## 단행본

- 20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
- 국립중앙박물관의 뉴스레터 '아침 행복이 똑똑'에서 시작된 기획 단행본으로 큐레이터와 관람객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100편의 글과 그림을 수록하였다. 달항아리, 반가사유상 등 대표 소장품에서부터 친근하고 독특한 조형미를 가진 유물을 개성 넘치는 글과 함께 편집했다.
- 128×188mm | 288p | ₩21,000 | ISBN 978-89-8407-857-4

\* 다음 호에는 소속박물관의 출판물을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팀



# 상형청자,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연계 라운드테이블



'상형청자,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 라운드테이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거 한국미술의 전통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 까라는 고민은 오랜 과제이자 현재진행형의 화두(話頭)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학자,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마케팅 분야로 확산되면서 전통과 현대의 관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점점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문화유산을 소장·연구·전시하는 박물관의 화답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2월 8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열린 '상형청자, 전통

의 재해석과 확장'이라는 라운드테이블이 그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원탁(圓卓)'을 뜻하는 라운드테이블은 기존의 전문적인 학술대회나 강연회와 달리 참석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회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개최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와 연계하여 성사되었다. 상형청자(象形靑磁)는 고려시대에 인물·동물·식물 등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로

서 우리나라 전통 공예문화의 정수로 손꼽힌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상형청자를 고려시대의 역사적·미술사적인 산물로만 한정 짓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공예라는 도도한 흐름의 큰 틀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날 행사는 박물관 전문가 2명과 외부 전문가 2명의 발제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려 상형청자, 전통의 재해석'을 주제로 상형청자에 담긴 고려인들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문화적 자



라운드테이블의 토론과 참가자(왼쪽부터 유의정, 임미선, 이애령, 강경남)

세와 창의적 변용에 주목했다. 중국 자기 문화를 수용하되 그것을 완벽히 소화하여 창출한 고려청자의 독창성과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를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고려 상형청자에 대한 미술사적 시각'에서 그동안 상형청자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와 전시를 짚어본 후, 주요 문헌기록을 통해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미술사에서 상형

청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진단하고 박물관 전시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도예작가로서 다수의 개인전시와 단체전시를 열며 활발히 활동 중인 유의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유의정 교수는 '도예 창작에서의 전통 계승과 확장'을 주제로 창작에 영감을 주는 박물관 문화유산의 역할을 예시한 후, 현대인에게 호소하는 문화적 코드를 찾아 점점을 만들어갔던 본인의 작품활동을 소개하며 도자기가 지닌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자비엔날레와 청주 공예비엔날레를 총괄했던 임미선 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비엔날레에서의 현대와 전통 공예의 접점'을 발표했다. 임미선 예술감독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예작가들이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작품활동 시 소재뿐만 아니라 양식과 물성(物性)의 특징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최근의 미학적 이론과 전시 경향을 함께 소개하며 들려주었다.

네 명의 전문가 발제가 끝난 뒤에는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발제자 간의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은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질답을 비롯하여 현대 공예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기관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등 미래지향적인 담론이 오가면서 전통의 재해석과 확장이라는 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100여 명을 수용하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고려 상형청자, 나아가 전통 공예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 공예문화에서 전통의 단절 문제를 극복하고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계승을 생각하는 소통의 장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박물관 특별전 연계 행사에 전공자들의 심도 있는 학술대회와 함께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대중적 눈높이의 토론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글. 서유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시간: 10:00~17:30(매달 셋째 주 월요일 휴관)

단체 관람: 누리집 사전 예약 필수(평일만 가능)

문의: 063-220-1035, 1016

# 참방참방~ 획획! 문방사우와 함께 신나게 놀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편

참방참방~ 획획획!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국립전주박물관은 지난해 12월 초 어린이박물관 개편을 마치고 한 달 남짓 시범운영을 했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의 이름은 ‘참방참방 획획’.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문방사우를 즐겁게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자 했고,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기획의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새롭게 바뀌었다. 서예 문화를 주요 콘텐츠로 소개하는 국립전주박물관의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에게 우리의 서예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벼루)를 주제로 하였다. ‘참방참방 획획’ 이름에는 먹물이 담긴 디지털 벼루에서 어린이들이 참방참방 뛰노는 모습과 디지털 종이 위에서 스스로 붓이 되어 자유롭게 획획 표현하는 느낌을 담고자 했다.

## 전시구성과 캐릭터

새롭게 조성된 전시 공간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벼루, 붓, 먹, 종이 주제 놀이터와 36개월 미만 영유아 전공 공간인 연적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붓꼬, 휘릭이, 먹토리, 붓꼬마 네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캐릭터는 먹물

이 묻은 붓모(붓꼬), 사용감이 느껴지는 붓(휘릭이), 먹물 방울(먹토리), 사용하지 않은 새 붓모(붓꼬마) 등의 모습이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다. 붓꼬는 전시 전반을 소개하고 휘릭이가 있는 곳에서는 체험을, 먹토리가 있는 곳에서는 벼루장, 붓장(모필장), 한지장, 먹장이 만드는 문방사우 영상을 만난다. 전시실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붓꼬마와 약속하고 입장하면 이들과 함께 다양한 아날로그 체험과 디지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문방사우에 대해 알아가는 아날로그 체험

‘휘릭리 붓 놀이터’, ‘까망까망 먹물 놀이터’, ‘뽕송뽕송 종이 놀이터’는 붓, 먹, 벼루, 종이의 특성에 맞는 아날로그 체험 코너다. 이곳에서는 문방사우의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무형유산 장인이 제작한 문방사우를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글씨나 그림으로 나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까망까망 먹물 놀이터’와 ‘디지털 책가도’



‘뽕송 뽕송 연적 놀이터’



‘참방참방 놀이터’

## 문방사우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디지털 체험

‘참방참방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참방참방 뛰어놀 수 있는 디지털 벼루와 내가 ‘붓’이 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종이 교차되는 반응형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이다. 디지털 벼루에서 ‘참방참방~’ 움직이면 먹빛 물결이 나타난다. 잠시 후 바뀐 디지털 종이에서는 움직임에 따라 붓의 움직임처럼 ‘획획~’ 그림이 그려진다. 신기한 놀이터는 또 있다. ‘수리수리 이루어져라 얹!’에서는 디지털 서예 붓을 이용하여 대형 LED 미디어월 속 디지털 책가도에 나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다.

## 새롭게 조성한 영유아 공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지역민들의 방문 비율이 높고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공간이 필요하였다. ‘뽕송 뽕송 연적 놀이터’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영유아 전용 공간이다. 문방사우 중 하나인 ‘연적’

을 주제로 하였다. 연적 모양에 나타나는 오리, 두꺼비, 물고기 등이 사는 연못놀이터에서 대근육과 소근육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를 즐길 수 있다.

## 소장품 활용하고 누리과정과 연계

전시실 곳곳에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체험물을 구성하였다. 다호리 붓, 포도 무늬 벼루, 석전 황옥 선생의 붓과 먹, 이정직 서화첩, 책가도, 오리 모양 연적, 두꺼비 모양 연적, 물고기 모양 연적 등을 놀이로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어린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배우며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 관람층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영역별로 누리과정과 연계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고지훈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시간: 9:30~17:30(매주 월요일 휴관)  
단체 관람: 누리집 예약 권장  
문의: 033-260-1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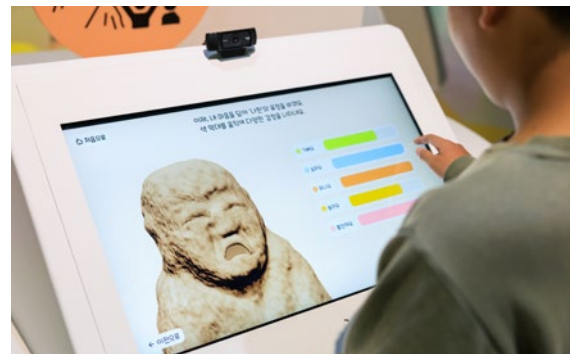
# 아이도 어른도 모두 모이는 곳, ‘강원 문화유산 모두 모여라!’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편

2024년 11월 26일 새롭게 선보인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유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어린이박물관의 새로운 주제는 ‘강원 문화유산 모두 모여라!’로, 강원의 다섯 가지 문화유산을 ‘내’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탐색·선택·표현·공유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의도를 잘 살려 어린이는 물론 함께하는 어른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고, ‘나’와 문화유산을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는 어린이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고민하고 중점을 둔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 어떤 주제와 소재로 할까?

어린이박물관 새 단장은 담당자와 박물관에게 흔치 않은 기회이므로 주제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였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의 주요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대표기관이기에, 어린이박물관을 강원의 대표 문화유산에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관람객과 연결 고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시그니처 문화유산인 창령사 터 나한상을 비롯해 금강산 그림, 강원의 그릇, 선림원 중 그리고 옛 채집 도구를 대표 소재로 결정했다. 이 다섯 가지 소재를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만의 대표선수로 삼아 그들의 이야기를 펼쳐냈다.



디지털 체험 활동 '내가 만드는 표정'



디지털 체험 활동 '내가 살리는 종소리'

## 어떤 매체를 사용할까?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보는 창조의 순간을 선사하고 싶었다. 이러한 색다른 체험 구현을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 문화유산의 대표 특징인 표정·여행기록·재료와 기술·소리의 발생·채집 활동의 원리를 디지털 기기로 탐색하고 ‘나’의 선택에 따라 표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적극 살려 누리집(chunkids.kr)에 접속해 이 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리집 활동 결과도 실시간 전시실 대형 화면에 게재된다. 박물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한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든 체험 기회를 누릴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신체 활동과 감각 체험 충족을 위해 각 문화유산마다 쌓기·건기·느끼기·만지기·던지기와 같은 아날로그 활동도 마련해 각 문화유산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섯 가지 문화유산 활동의 묘미란?

첫 번째 활동은 ‘내가 만드는 표정’으로 국립춘천박물관의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 나한상(돌로 만든 부처의 제자 조각상) 얼굴에 내가 선택한 표정을 얹어보는 체험이다. 디지털 기기로 기쁨·슬픔·놀람·두려움·화남의 감정 수치를 각각 조절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을 확인하며 스스로 표정을 선택하도록 했다.

두 번째 활동 ‘내가 그리는 금강산’은 조선시대 정선이 그린 금

강산 그림을 활용해 금강산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금강산 명소를 선택해 나만의 여행 기록을 꾸미는 디지털 체험이다. 이와 함께 금강산을 오르내리는 간접 체험 대형 구조물도 설치했다.

세 번째 활동 ‘내가 만드는 그릇’은 용도와 재료 선택에 따라 그릇 형태와 종류가 달라지는 디지털 체험이다. 토기·청자·백자가 각각 어떤 준비물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활동은 청각 체험인 ‘내가 살리는 종소리’다. 전쟁 때 불에 타 지금은 형태가 일그러진 선림원 절에 있던 종의 소리를 살려보는 체험이다. 소리의 원리와 종소리의 특징인 ‘맥놀이’를 배워가며 선림원 절터에서 울리던 종소리를 자연의 소리와 조합하여 만들고 들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활동인 ‘나는야 최고의 채집가’는 이동 생활과 정착 생활을 하던 먼 옛날로 돌아가 과일을 채집하고 곡식을 추수해 보는 디지털 체험이다. 공을 던지면서 식량을 수확하는 성취감을 얻게 하는 체험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어린이박물관 뚜껑을 열어보니?

연령대가 다른 어린이의 관람 패턴을 살펴보니 대략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신체 활동을 선호해 아날로그 체험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반면, 10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익숙하게 활용해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즐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기획 시 예측했던 대로 아날로그 체험물과 디지털 체험물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학습하는 양상이 확인된 것이다. 또 하나, 어린이가 인솔자와 함께 디지털 활동을 할 때 어린이가 활동의 주체가 되고 인솔자가 자연스럽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른들도 디지털 체험에 참여해 자신만의 작품 만들기에 몰두하는 상황을 보면 기획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만을 위한 곳이 아니며, 문화유산에 색다르게 접근해 기대 이상의 만족을 끌어내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 박물관의 징검다리,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담당자로서 박물관에 있는 과거의 물건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만들고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한 친근감을 가지고 현재 나의 선택과 방식으로 과거의 물건을 재창조하는 재미와 깨달음을 선사하고자 했다. 어린이박물관에서 맛본 즐거운 경험이 징검다리가 되어 상설전시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로 느끼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글. 박연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 삼월 삼진날에 보는 나비점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조선의 아무개가 읊은 시입니다.  
결릴 것 없는 자유로움과 함께  
머물 곳 없는 서글픔도 느껴집니다.  
아름다움, 자유분방, 그리고 애잔함은  
나비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조선시대에는 삼진날에 답청<sup>답청</sup>을 나갔습니다.  
벗과 친지가 모여서 찬함에 주전부리를 켜켜이 담아  
꽃 흐드러진 산과 들로 쏘다니는 답청의 기쁨.

이날은 나비점도 보았습니다.  
답청에서 처음 눈에 들어온 나비의 색이  
한 해의 길흉을 알려준다고 생각했지요.

여러분은 무슨 나비를 보셨나요?  
남계우의 이 그림을 먼저 보셨다면 대길<sup>대길</sup>입니다.

범나비(호랑나비)와 노랑나비는  
기쁜 일, 먹을 복이 들어올 징조이니까요.



꽃과 나비 花蝶圖  
남계우南啓宇(1811~1890)  
조선 19세기  
종이에 색  
화면 각 127.9×28.8cm  
각수 719

글. 이재호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20 <sup>2005</sup>/<sub>2025</sub>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 지역과 함께 성장한 국립박물관의 기록

공백이 아닌 연대와 채움의 시간으로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을 앞두고 1년간 휴관했다. 하지만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한류의 확산과 문화 관광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지역과 더욱 밀착된 연구와 전시, 교육을 펼치며 문화적 가치를 확장했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며, 교육과 소통의 장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대의 개막 이래, 국립박물관은 대한민국의 문화지도를 더욱 촘촘하게 잇고 있다.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국립박물관은 오늘도 성장 중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며, '한류'라는 이름 아래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아시아 전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 영향으로 2004년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0만여 명 증가한 582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는 전염성 질병과 테러 위협이 겹쳤지만 다행히도 한류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다.

한류의 확산은 문화 및 관광 산업의 급성장을 견인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국내 관광 진흥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특정 지역을 선정해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며, 해당 지역의 방문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지역 축제와 관광 명소, 특산물을 다양한 매체와 온라인에서 홍보하였고, 다국어 안내서와 지도, 모바일 앱 등 정보 제공의 폭도 넓어지고 빨라졌다. 전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속열차(KTX)의 개통 역시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박물관은 문화 관광의 핵심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온 국립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중요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을 앞두고 2004년 10월부터 1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국내 여행의 활성화는 소속 국립박물관에 오히려 활력을 더해주었다.

전통적으로 국립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보존하며 전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역사와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지역 출토 문화유산의 연구 및 전시, 지역의 기증자와 기증 문화유산, 지역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의 매력을 전달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의 소속 국립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독자적인 문화 가치를 창출해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2만 4천여 점의 유물을 토대로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실체를 다양한 전시로 엮어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도자문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립김해박물관은 삼국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던 가야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여 활발한 전시와 연구를 진행하며 가야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진주성이라는 박물관의 위치적 특성을 살려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발돋움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사료들을 종합하여 섬 문화를 콘텐츠로 다양한 전시와 역사 자료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소속 국립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며 지역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발전소로 그 역할을 확대했다.

이 시기 국립박물관의 가장 큰 화두는 문화가 숨 쉬는 배움터이자 놀이터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전주에서 사회교육관이, 2004년 청주에서 사회교육관과 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같은 해 경주에서는 안압지관의 새 단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에는 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이후 국립박물관의 사회교육에 대한 열기는 대구, 김해, 광주로도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고조시켰고, 전국적으로 교육직을 확충하면서 박물관 교육은 한층 더 전문화된 시스템을 활발히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지속해오던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국립박물관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움직이는 박물관>으로 시작되어 1998년부터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운영하던 이동식 전시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부터는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등지에서도 진행하며, 지역의 학교와 복지시설에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국립박물관들이 연계하여 개최한 지역 순회전은 지역 간의 문화유산 연결망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지난해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12개 소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국보순회전>이라는 큰 결실을 맺기도 했다. 국립박물관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보급 문화유산을 지역 박물관에 전시한 것인데, 개최 도시의 박물관 관람객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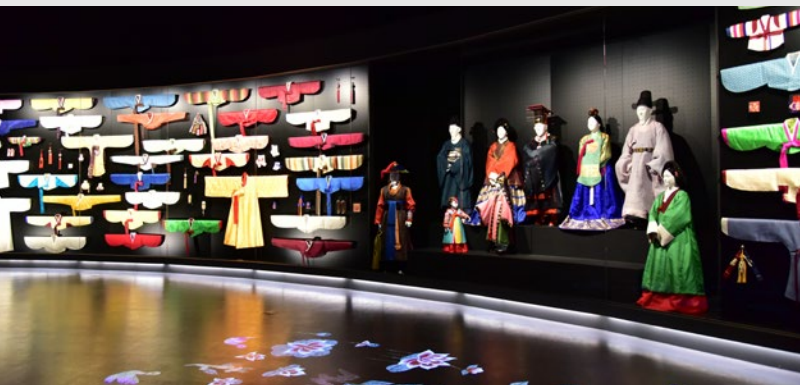
오늘날의 결실 뒤에는 소속 국립박물관의 특성을 찾고 강화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 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소속박물관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각 관의 고유한 브랜드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든든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한 국립박물관은 광

복 직후 세 곳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개관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을 포함해 14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문화지도를 연결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행보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2025년, 우리는 다시 20년 전의 국립박물관을 되돌아본다. 용산 이전을 앞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휴관했던 1년은 정체가 아닌 도약의 시간이었으며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박물관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년 후, 멀게는 100년 후 우리는 삶의 터전과 역사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박물관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국립박물관 개관 이래 80년 동안 축적된 전통과 전문성은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이자, 미래로 이어질 문화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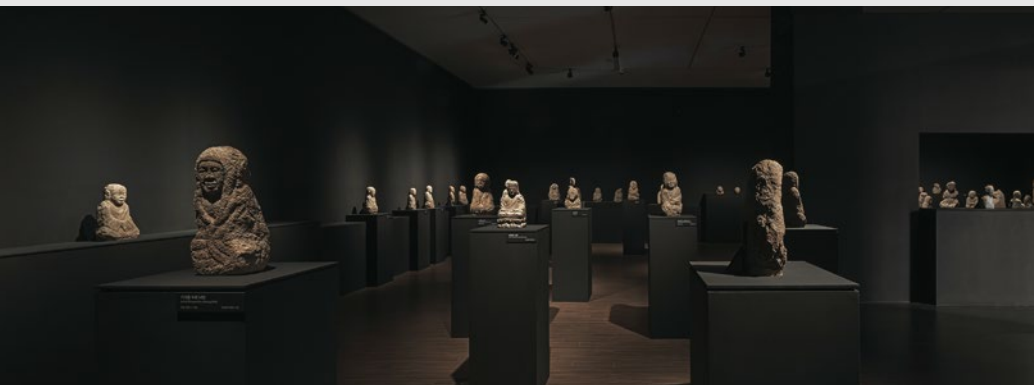
글. 편집팀



2023년 새 단장한 국립대구박물관의 복식문화실



당진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국보순회전 <시대를 담다, 농경문 청동기> 관람 현장



강원도와 전라도의 나한상을 소개한 2022년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깨달은 수행자, 나한: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 전시실



무령왕릉 발굴 이후 50년 주요 연구 성과를 반영한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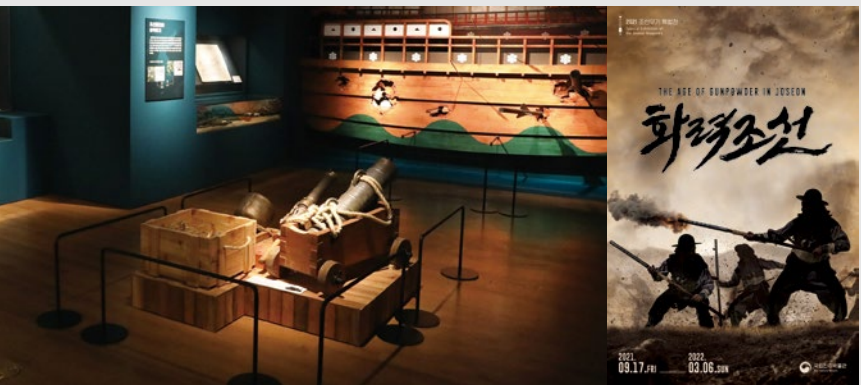
중원 문화를 보여주게 될 국립충주박물관의 착공식



2020년 선보인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실



2000년 전남 소록도를 방문한 '찾아가는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제작해 큰 관심을 이끈 <화력조선> 포스터와 전시실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백제 국보관의 조감도(안)





# 광활한 네트워크에서 만나는 황금의 나라

영국박물관 The British Museum  
특별전 <실크로드 Silk Roads> 속 신라  
2024.9.26.~2025.2.23.



글. 록 유핑 Luk Yu-ping  
영국박물관 중국회화, 판화 및 중앙아시아  
소장품 담당 바실 그레이 큐레이터  
Basil Gray Curator: Chinese Paintings, Prints  
and Central Asian Collections, British Museum

영국박물관 세인트버러 전시관에서 최근 개최된 <실크로드 Silk Roads> 특별전(2024.9.26.~2025.2.23.)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중첩된 네트워크로서 실크로드의 광활한 비전을 선보였다. 전시는 실크로드의 오랜 역사에서 주요 정치체가 대륙을 가로질러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이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의 확산이 세계 여러 지역을 한층 더 연결했던 시기인 기원후 500년부터 1,000년까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크로드의 본질이 드러났던 이 시기에 접촉과 교류는 육지와 바다와 강을 건너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사람, 물건, 사상이 교역뿐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이동하였다.

전시 관람객은 동아시아에서 서북부 유럽까지 서로 중첩되는 지역 다섯 군데를 여행하듯 관람하게 되는데, 이 지역들은 문화 간 가교 역할을 하였던 민족이나 장소를 소개하는 여섯 건의 사례연구로 연결된다. 의도적으로 전시 공간을 개방형으로 디자인하여 관람객이 전시관을 멀리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크로드>전에는 302건의 유물이 전시되었으며 그 가운데 40% 이상은 국내외 29개 기관에서 대여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대여할 수 있었던 화려한 유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라 금성(오늘날 경주) 섹션에서는 노서동 215번지 무덤에서 출토된 곱은옥이 달린 금 목걸이를 전면에 전시하여 신라를 황금의 나라로 소개하였다. 그 옆에는 기원후 300년대 후반부터 500년대 초반 사이 신라 고위층의 무덤에서 발견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입된 귀중품을 전시하였다. 그 중에는 천마총에서 출토된 동지중해 지역의 푸른색 유리잔과 아마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흑해 연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석류석 칠보장식이 된 보검과 검집이 있다. 신라의 불교 도입은 인상적인 감은사지 동 삼층 석탑 사리기 외함과 금동 부품이 달린 수정 사리병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두 점의 토옹과 신라에서 화장 후 뼈항아리로 사용되었던 중국 도자 등으로 중국 당나라와의 지역 간 관계를 강조하였다.

경주에서 출토된 당나라 도자와 계림로 보검은 전시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후자는 관람객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석류석 칠보장식 기법이 잉글랜드 서퍽 지역 서턴 후 Sutton Hoo 배 무덤에서 발견된 동시대 보석의 제작기법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해당 유물은 전시관 끝에 전시되었으며 당시 여러 방향으로 기술과 귀중품이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실크로드>전의 기획은 6년 전인 2019년 초 시작되었으며 나와 두 명의 동료, 수 브루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닝 Sue Brunning, 엘리자베스 R. 오코넬 Elisabeth R. O'Connell까지 세 명의 큐레이터로 이루어진 팀에서 출발했다. 2019년 여름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에 운 좋게 참가하게 되었다. 경주 방문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이후 이루어진 유물 대어의 계기가 되었다. 2023년 다시 경주를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영국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을 담당하는 동료인 김상아 큐레이터와 함께 하였다. 경주의 전문가들은 전시품 선정에 귀중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이현

태 학예연구사는 전시 도록에서 신라에 대한 논평 부분에 특히 도움을 주었다. 윤상덕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은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s』 학술지의 동 전시 기념 특별호에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에 관한 대단히 흥미로운 논문을 기고하였다. 2024년 12월에는 당시 국립경주박물관 함순섭 관장께서 영국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 연계 국제학술회에서 신라와 실크로드를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큰 영광이었다.

영국박물관 <실크로드>전은 5개월 간 언론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비평을 받았으며 전시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이번 전시는 함께 짜인 역사를 강조하였으며 여러 다양한 유사성과 한반도와 그 너머에까지 이르는 장거리의 문화적 연결을 드러냈다. 전시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한다.

## 필자 소개

록 유핑 박사는 영국박물관 중국회화, 판화 및 중앙아시아 소장품 담당 바실 그레이 큐레이터이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중국 소장품 담당 큐레이터, 영국박물관 <명: 중국을 변화시킨 50년> 담당 프로젝트 큐레이터, 홍콩 링난대학교 시각연구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나라 황제, 둔황 지역 회화를 중심으로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박물관 <실크로드>전 공동 큐레이터이자 전시 도록의 공동 저자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신문』의 'K-뮤지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경주 계림로 보검 慶州 鷄林路 寶劍  
6세기 신라  
금, 유리, 석류석  
전체 길이 36.8cm, 최대 폭 9.05cm  
보물  
경주42429



# 박물관을 배우다, 박물관을 꿈꾸다

예비 전문인력 대상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일반 과정 참가자

지난해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이하 ‘뮤지엄 아카데미’)는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 예술 기관 종사자,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예비 학예 인력을 대상으로 통합적·체계적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기본 이론부터 구체적인 실무 사례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국립박물관·미술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올해는 예비 전문인력으로 확대하여 일반 과정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박물관이 좋아서, 박물관에 걸맞은 전문성을 쌓고 싶어서 교육 기회를 기다려 왔던 이들에겐 단비 같은 시간. 박물관의 매력에 푹 빠져 강의에 열중한 예비 박물관인들을 만나본다.



조아영



이하영



김찬영



오선경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찬영**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화와 미술교육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였고, 교직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지닌 새로움과 매력에 이끌려 진로를 확장했고, 현재 어린이박물관에서 전시기획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오선경**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도자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로 학업과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영** 세종대학교에서 역사학과에 재학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물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박물관에 매력을 느껴 학예사를 꿈꾸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예사로서 인류의 발자취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조아영** 학부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세부 전공은 동양사였습니다. 역사를 비롯해 박물관, 전시, 출판, 디자인 모두에 관심이 많아 국립중

앙박물관 인턴에 지원하여 디자인팀 출판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네 분 모두 박물관의 매력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뮤지엄 아카데미’ 참여 역시 그 때문인가요?

**김찬영**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꿈꾸고 있지만 박물관의 다른 분야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중 ‘뮤지엄 아카데미’를 접하게 되었고 어린이박물관 이외의 여러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진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선경** 박물관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실무를 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학예업무 학습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보게 된 ‘뮤지엄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서 박물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이하영** 많은 대학에서 박물관학, 역사학, 고고학과 같은 박물관 관련 전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로가 고민됐는데 ‘뮤지엄 아카데미’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 많아 박물관 업무를 체험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에 참여하며 학예사의 실제 업무

와 요구되는 역량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아영** 지난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과정을 보며 언젠가 저도 꼭 듣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이 열려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박물관 근무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박물관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특히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교육 내용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찬영** 모든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감을 이끄는 박물관·미술관 전시 기획’ 강의에서 ‘박물관에서는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기획자가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의도로 풀어내는지에 따라 관람객의 감흥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획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장품은 그 기관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라는 말씀도 인상적이었는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만 생각해 봤지 기관의 정체성과 연결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시기획이나 교육 개발을 할 때 단순히 즐거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품의 활용까지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열리고 있지만, 앞으로 관람객에게 소개할 저만의 콘텐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이슈, 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러한 지점이 저에게 큰 흥미와 동기를 주었습니다.

**오선경** 우선 전시와 유물관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업무의 필요성이나 중요도와 같은 실무를 수행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의문들이 단번에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시, 유물관리, 어린이 박물관 교육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대상 연령층을 세밀하게 정해 구성하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기 쉬운 문화유산을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해주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하영** 이번 교육을 통해 학예사의 역할이 단순히 소장품 관리와 전시기획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 교육과 어린이박물관 운영' 강의에서 다양한 교육 대상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화 소외 계층, 다문화 계층, 청소년 등 각기 다른 대상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게 되었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어린이병원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수집과 관리' 강의에서는 소장품 관리와 활용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레지스트라<sup>Registrar</sup> 직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과정이 매우 세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 소장품을 다룰 때는 무엇보다 신중함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도 되새겼습니다. 특히 수장고나 소장품과 관련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소장품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멘털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도 필수 요건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아영** 국립박물관에서 진행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유물 등록, 관리, 보존, 복원 등 수장고를 비롯해 전시실 뒤편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인력의 노고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에게 전시를 공개하기까지 필요한 기획, 디자인, 글쓰기, 출판·홍보물 제작 등의 과정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 현장에서 일하며 체득한 전시 및 출판 디자인 업무 강익까지 들으니 업무 체계 및 지식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박물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Q** 예비 박물관 전문인력으로서 '이런 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나요?

**김찬영** 분야별 주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실습 교육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못지않게 실제 현장을 체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박물관의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실제 활용해 보는 기회가 생기면 실무 영역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선경** 강의의 내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물관리 분야에서는 모조품을 직접 포장해보거나, 수장고 견학 등과 같은 내용으로요. 교육관련 부분에서는 실제로 진행되었던 교육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직접 체험해보거나, 하나의 유물, 테마를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수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영** 업무 현장 체험이 포함되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시기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시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나 디지털 전시 기법에 대한 심화 교육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감각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적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조아영** 박물관의 어떤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배워두면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도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 채용 시에도 세부 전공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전공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가고 싶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박물관인으로 성장하고 싶고, 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들려주세요.

**김찬영**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자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어린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모두의 기억에 남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선경** 많은 사람이 우리 문화유산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박물관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와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정확한 정보를 국내외 많은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특히 해외문화원이나 해외박물관 내 한국실 등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와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이하영**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박물관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관람객이 전시를 본 후 스스로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해석을 내릴 수 있



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박물관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박물관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아영** 우선 디자인팀 출판 지원 인턴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출판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처럼 앞으로도 박물관이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단행본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도록 번역본과 영문 학술 저널 등 출판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박물관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출판기획뿐만 아니라 전시기획에도 참여해 관람객에게 박물관과 소장품의 가치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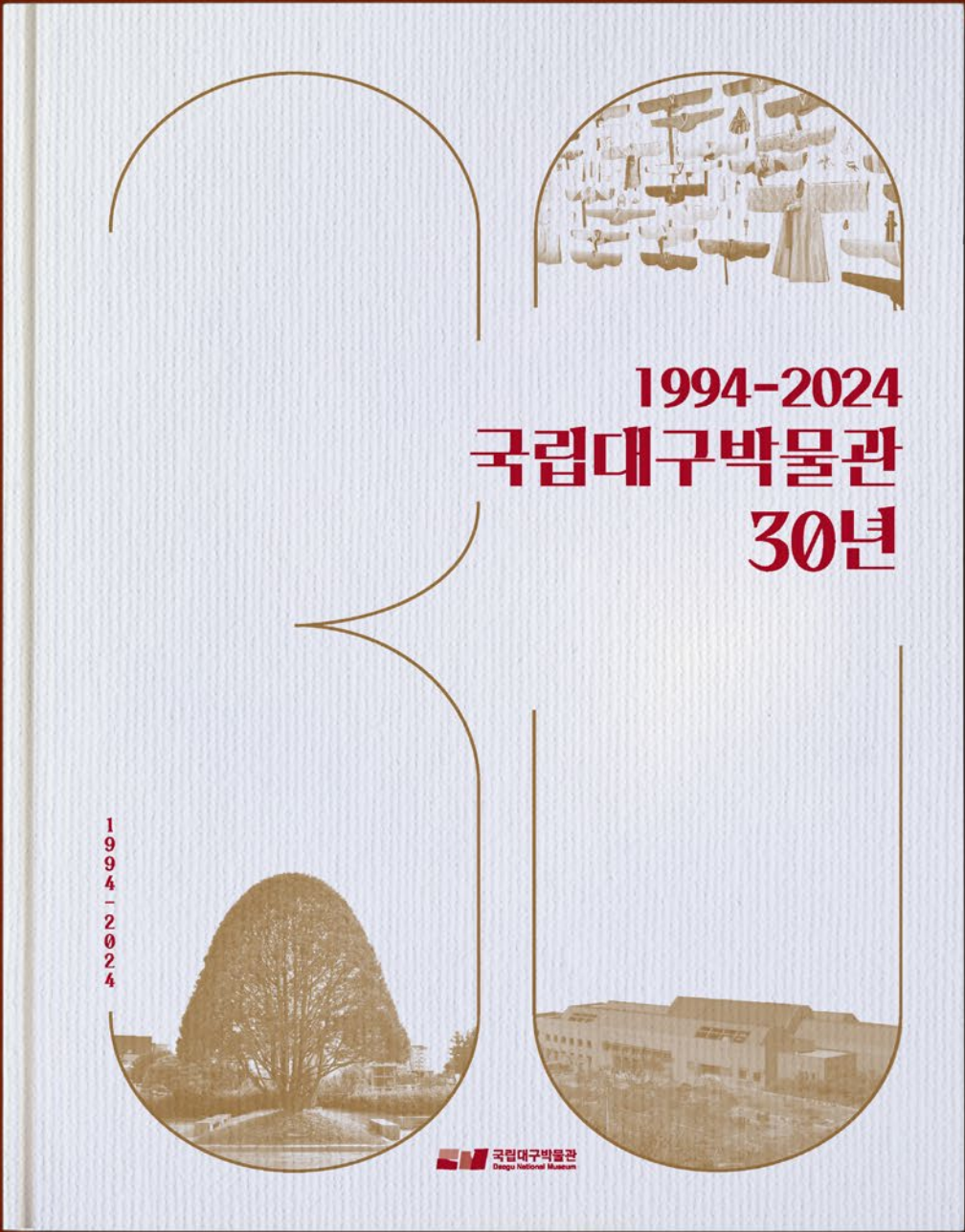
2024년 첫 걸음을 뗀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는 전국의 국립박물관·미술관 학예직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17개 부처 37개 국립박물관 재직자 191명이 참석한 '뮤지엄 아카데미'는 성공적인 교육 운영에 힘입어, 국립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획과 단계별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박물관·미술관 교육 방법을 모색해가고자 한다. '뮤지엄 아카데미'가 박물관인을 꿈꾸는 더 많은 이와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정리. 편집팀



# 기록과 기억, 마음을 엮어내다

「1994-2024 국립대구박물관 30년」 국립대구박물관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좌담회 모습

지난 2024년 12월 7일은 국립대구박물관이 개관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자료집을 준비하여 출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객관적 ‘기록’을 정리하여 살펴보는 것에 주관적 ‘기억’을 더했다는 점이다. 연혁이나 전시 등 사업 중심으로 지난 시간을 간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립대구박물관과 함께해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박물관을 돌아보는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을 거쳐 가신 분들께 원고를 요청드리고, 현재까지 오랜 기간 재직 중인 분들은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다. 크게 다섯 가지 키워드(업무, 유물, 사람, 생활, 공간)와 질문을 제시하고 그중 한두 가지를 택하여 자유롭게 기술하거나 답하도록 했으며 관련 사진도 함께 부탁드렸다. ‘국립대구박물관에 발령받았을 때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등의 여는 질문과 ‘나에게 국립대구박물관의 의미와 앞으로 30년을 위한 조언’ 등 닫는 질문은 공통으로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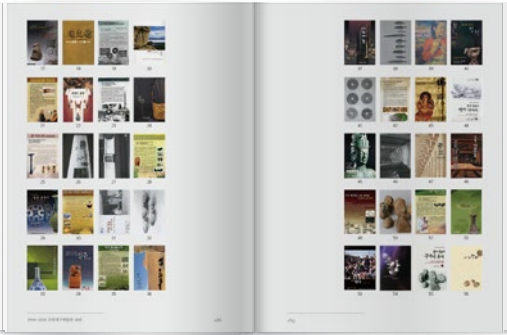
자료집 출간을 위한 또 다른 준비는 국립대구박물관의 역대 관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더위가 한 풀 꺾이던 2024년 8월 29일 총 여섯 분의 관장님이 모였다. 1대 김성구 관장부터 김권구(3대), 김정완(4, 6, 10대), 함순섭(9, 13대), 홍진근 관장(12대), 현재 14대 김규동 관장까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국립대구박물관을 향한 바람을 나누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기억’으로 기획운영과(9), 학예연구실 직원들(22), 자원봉사자(3), 기증자(1)까지 총 35편의 이야기가 부서별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렸다. 두 번째는 ‘기록’으로 국립대구박물관 연혁, 기획전시, 소장품 관리, 유물수증의 30년과 연도별 관람객 현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더하기’에서는 30주년 기념 역대 관장 대담 내용과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서른다섯 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추억하는 국립대구박물관의 유물, 사람들, 생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30년을 함께

돌아보도록 잔잔하게 말을 거는 것 같다. 첫 출근에 마음이 설레던 사회 초년생의 풋풋함도 담겨 있으며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 향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전시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시간과 뿌듯했던 마음을 기억하기도 하며 아름답고 소중하게 기억하는 문화유산이나 박물관 공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국립대구박물관이 지나온 소중한 발자취일 것이라 믿는다. 여기에 담긴 박물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30년의 시간을 함께 추억하기를 바란다. 바쁘신 중에도 다양한 주제로 원고를 제출해 주신 국립대구박물관과 인연이 있는 직원들, 자원봉사자, 기증자 가족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글. 이지원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서화실 정기 교체

2024년도 신규 구입 서화,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보존 처리 완료 작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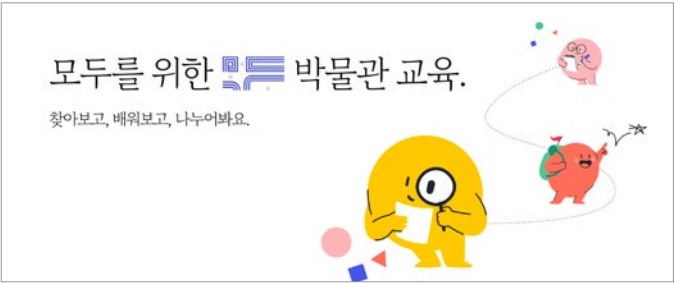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서화실 정기 교체를 실시하고 소장 서화 등 26건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교체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2024년도에 구입한 강세황(1713~1791)의 〈자화상〉(보물)과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을 통해 보존 처리가 완료된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 〈호렵도〉를 특별 공개한다.

서화3실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조선시대 새해 송축용(頒祝用) 그림인 세화(歲華)를 주제로 전시한다. 서화4실에서 공개되는 강세황의 〈자화상〉은 강세황이 70세 자신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다. 서화5실은 겨울 풍경과 사냥 장면을 주제로 꾸며졌다. 김명국(1600~1662 이후)의 〈눈 속에 나귀 타고 떠나다〉와 김수철(?~1862 이후)의 〈매화에 둘러싸인 집〉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사냥 장면은 〈매사냥〉, 〈호렵도〉 등으로 활과 창 외에도 매를 이용한 사냥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렵도〉(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 소장)는 궁중 화원들의 시험 화제로 출제되었고 정조대 기마술 강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서화4·5실은 오는 23일까지, 서화3실은 4월 6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조선시대 세화와 문인화, 실경산수화, 겨울 풍경과 사냥 장면이라는 다채로운 주제를 한자리에 모은 자리로 조선시대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국립박물관 교육 플랫폼 모두(MODU) 누적 방문자 228만 명 돌파

교육 인터넷 통합 플랫폼 구축 3년 만의 기록



국립박물관의 교육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교육 인터넷 통합 플랫폼 모두(MODU)의 누적 방문자 수가 구축 3년 만에 228만 명을 돌파했다. 이 플랫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크게 ‘탐구해요’, ‘배워봐요’, ‘함께해요’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메인 화면에 ‘이달의 테마’ 코너를 신설하여 매월 박물관 소장품과 연계된 새로운 주제를 교육자료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전시 및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모두(MODU)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박물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지난해 12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히, 모든 동영상에 자막 모아보기 기능을 추가하여 청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쉽게 박물관 교육 콘텐츠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교사와 어린이 위한 문화유산 교육

교사 연수와 어린이 교육 영상으로 문화유산 배움 확산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린이 교육 영상을 공개해 문화유산 배움 확산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연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등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가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어린이박물관 및 선사·고대관 등 신규 개편 전시관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포함해 현장감을 살렸다. 또한 어린이가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육 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체험전시물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지난 2월부터 공개중인 4편의 영상에는 〈수레바퀴 모양 토기〉, 〈청자 투각 칠보무늬 항로〉, 〈백자 달항아리〉, 〈수박과 들쥐〉, 〈고양이와 참새〉 등이 활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에도 〈주먹도끼〉, 〈청동검〉, 〈빈가사유상〉, 〈항남대종 금관〉, 〈양부일구〉, 〈경천사 심층석탑〉 등을 활용해 유아용 2편, 초등용 5편을 연내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2025 국립대구박물관 패션쇼 공모전 개최

2.19.~3.28.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대상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는 3월 28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박물관 문화유산 중심의 우리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박물관 런웨이: 2025 국립대구박물관 패션쇼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한국의 신발, 발과 신〉, 〈한국의 허리띠 -끈과 띠-〉, 〈선비의

의 멋, 갓〉 등의 특별전시를 개최해왔다. 더 나아가 박물관 전시 및 소장품을 연계한 새로운 장르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박물관 방문 콘텐츠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섬유패션 도시인 대구·경북지역의 패션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K-패션 인재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당선 대학에는 패션쇼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daeg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2025.01.16.~2025.02.17.)					
보인	2025-02-17	학예연구관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국립경주박물관장
2025-01-17	전산서기	안수진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전임	2025-01-24	전산주사	강옥희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5-02-10	과학기술서기관	김준환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2025-01-16					
2025-01-17					
2025-01-31					
2025-02-10					
2025-01-16					
2025-01-16					
2025-01-20					
2025-01-20					
승진	2025-01-22	방호서기보	박지훈	국립전주박물관	→ 방호서기
임용	2025-01-22	방호서기보	김성훈	국립전주박물관	→ 방호서기

###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백제국보관 공연 시리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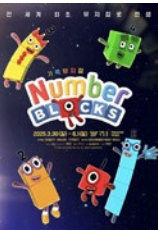
봄맞이 지브리 콘서트 개최



국립부여박물관은 오는 12월 사비백제시기 국보 4점을 단독 전시하는 ‘사비백제국보관’ 오픈을 앞두고 새로운 전시관 개관을 기념하여 분기별로 개관 기념 공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그 첫 번째로 봄날의 클래식 ‘지브리 콘서트’가 3월 15일 오후 5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윤승업 지휘자가 이끄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연주한다. 첼리스트 윤석우의 해설과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김영기, 오보이스트 김예현, 소프라노 이한나가 출연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특히 공연에서는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추억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속 명곡들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생생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과 설렘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 당일에는 예매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국립부여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국보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을 찾고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지브리 굿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 극장 용, 〈넘버블록스〉 뮤지컬 전 세계 최초 공연

BBC 인기 애니메이션이 무대 위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극장 용이 전 세계 최초로 영국 BBC 방송의 인기 교육 애니메이션 〈넘버블록스 Numberblocks〉를 뮤지컬로 선보인다. 뮤지컬 버전의 〈넘버블록스〉는 원작자인 조 엘리엇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프로젝트 매핑과 미디어 아트 기법을 도입하여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을 더

욱 생동감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 요소를 더하였으며, 공연장 내 작품 관련 교구, 도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테마 체험존도 함께 운영한다. 뮤지컬은 오는 3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극장 용에서 펼쳐지며 예약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에서 할 수 있다.

### 디지털 헤리티지 국제심포지엄 ‘CIPA 2025 SEOUL’ 개최

문화유산 기록 및 보존을 위한 국제 행사, 8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디지털 헤리티지 국제심포지엄 〈CIPA 2025 SEOUL〉를 8월 25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개최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산하 CIPA(국제문화유산기록위원회)는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68년에 설립되었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 3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공동 주관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최신 연구와 기술 공유를 위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박물관과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을 보여주는 이번 대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www.cipa2025seou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PA 누리집  
바로가기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3 MARCH	4 APRIL	5 MAY	6 JUNE	7 JULY
중앙	+ - ÷ ×(알기 쉽고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2024.11.19.~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11.26.~2025.3.3.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2024.11.30.~2025.3.3.				
경주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   2018.01.26.~				
	〈소소하고 소중한〉   2024.12.10.~2025.3.9.				
광주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   2024.1.2.~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2024.11.12.~2025.3.10.				
전주	참방참방 획획   2025.1.2.~				
	〈재물신과 근대〉   ~2025.4.27.				
	서예문화실 재개관   2025.6.5.~				
대구	고 이견희 회장 기증 석조물   2024.12.6.~				
	고 이견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2024.12.7.~2025.3.3.				
부여	〈Hello 향로! 백제금동대향로의 초대〉   2025.1.2.~				
	옥외전시장 재개장   2024.8.26.~				
공주	〈왕과 왕비의 보물을 찾아줘~〉 2025.1.2.~8.10.				
	국가귀족유산 미리보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재발견〉, 〈이목집중 문화유산〉   2024.11.23.~				
	〈옥의 석조문화유산 정원~수호의 정원〉   2024.9.10.~				
진주	〈진주목과 진주사람(가제)〉   2025.5.20.~8.24.				
청주	국가유산 속 금속 이야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영유아체험실)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거울, 시대를 비추다〉   2025.3.21.~7.20.				
김해	〈크리스탈(水晶) 가야(加耶)〉   2025.5.19.~7.31.				
제주	'안녕, 제주!'   2021.11.26.~				
	〈동자상, 조각 정원〉   2022.11.11.~				
춘천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2024.8.13.~				
	〈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나주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				
	〈국보 신촌리 금동관, 새로운 관점〉   2025.4.29.~7.25.				
익산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5.25.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5.6.3.~8.31.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중앙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어린이를 위한 감상가이드	2024.11.26.(화)~2025.3.3.(월)	특별전시실
	〈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3.4.(화)~3.29.(토) 10:00~11:30 / 14:00~15:30	공간 오감
경주	[특별전 연계] 큐레이터와의 대화	3.4.(화) 16:00	특별전시관
	[특별전 연계] '찰칵! 내가 찍은 문화유산'	3.7.(금) 14:00~15:30	특별전시관 및 상설전시실
광주	3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3.26.(수) 17:00~17:30	신라역사관
	무력무력! 문화유산 더하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전주	나의 짝궁 문화유산 뽑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전북에 있는 우리마을 보물찾기	3.8.(토), 3.22.(토), 3.29.(토)	본관
대구	상자가 열리면	상시	어린이박물관 2층
	[유아 단체] 개구쟁이들의 박물관 여행	3.18.(화)~3.27.(목) 매주 화·목 10:30~11:30	꿈마루
	[초등 단체] 교과서 속 문화유산 이야기	3.19.(수)~3.28.(금) 매주 수·금 10:00~11:30	문화사랑방·강당
부여	[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단추	3.8.(토)~3.29.(토) 매주 토 14:00~16:00	해설관 로비
	3차 온(ON) 가족 신선놀이	3.21.(금)~3.24.(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온라인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3.1.(토)~3.31.(월)	온라인
	보고 듣고 느끼는 호기심 박물관	3월 중 예약제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3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공주	향로 속 친구와 인사해요!	3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한국의 색·향·미	3월 중 예약제	교육실
	희망박물관 더불어 좋은 세상!	3월 중 예약제	교육실
	유 퀴즈? 관찰하GO 생각하GO	1.2.(목)~12.31.(수)	상설전시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백제 무령왕릉	3.27.(목)~7.17.(목)	온라인
진주	뽕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3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역사문화홀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3월 매주 수·금 9:30~11:3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제14기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3.29.(토) 9:30~11:30	교육실, 강당, 전시실
	조선 수군 체험	3월 상시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청주	석신로드(AR콘텐츠)	상시	야외정원
	큐레이터와의 대화	3.26.(수)	상설전시실
김해	큐레이터와의 대화	3.26.(수) 16:00	세미나실
제주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3.26.(수) 14:00~16:00	강당
	국립제주박물관 탐구생활	3월 중 화~목	교육실
	보급형 교육상자 대여	3월 중 상시	각급 학교
춘천	관람객 누구나,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상시	문화놀이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춘박 명품 토크보기〉	3.26.(수)	상설전시실
	단체 대상 상설전시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처음 만나기〉	3.5.(수), 3.7.(금), 3.11.(화), 3.12.(수), 3.14.(금), 3.18.(화), 3.19.(수), 3.21.(금), 3.25.(화), 3.26.(수), 3.28.(금)	전시실, 숲속배움터
	어린이, 가족 교육 프로그램 〈토요박물관〉	3.22.(토)	갤러리 카페
나주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3월 매주 토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가족] 종이풍선에 담긴 문화유산	3월 매주 일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익산	구석구석 미륵사지 탐험대	3.2.(토)~3.29.(토) 매주 토 10:00~17:00	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3.1.(토)~3.30.(일) 매주 토·일 및 공휴일	상설전시실



[뭇즈(MU:DS)] 신학기 선물 추천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 1

**12지신 캐릭터 볼펜**  
우리나라 전통 모자를 착용한 12지신 캐릭터 볼펜이다. 알록달록 귀여운 십이지 캐릭터와 함께 나의 띠를 표현해보자.  
크기: 148×210×5mm  
판매가: 각 5,000원(50% 할인 판매 중, 각 2,500원)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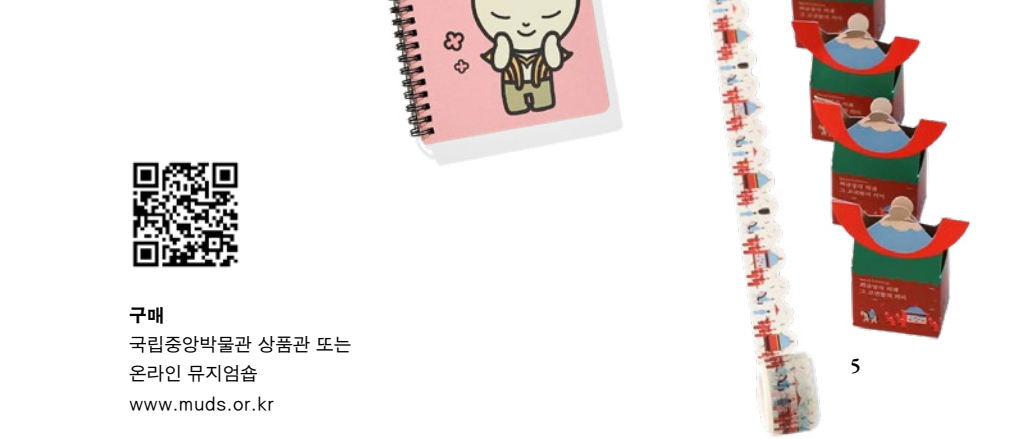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멋 책갈피 세트**  
조선시대 선비의 멋 '갓', 조선시대 여인의 멋 '가체' 그리고 조선시대 연회의 멋 '상차림' 책갈피를 각 1개씩 3개를 한 세트로 묶은 상품이다.  
크기: 70×110mm  
소재: 노방천, 자수  
판매가: 28,000원



- 3

**신라토우 마그넷 세트**  
신라토우는 흙을 재료로 만든 인형으로 신라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점토를 사용해 손으로 빚은 아기자기한 신라토우 마그넷 세트로 신라인들의 숨결을 간직해보자.  
크기: 20×40×25mm  
소재: 도자기, 자석  
판매가: 29,000원
- 4

**반가사유상 캐릭터 스프링 노트(M)**  
반가사유상 캐릭터가 들어간 4가지 컬러의 스프링 노트이다. 내부에는 표지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8mm 간격의 점이 그려져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이 사용하기 좋다.  
크기: 130×180mm, 180p  
소재: 종이, 금속 스프링  
판매가: 각 5,000원



- 5

**의궤 마스킹 테이프 2종**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전시품인 <인조장렬왕후가 레도감의궤>를 그래픽으로 단순화하여 귀여운 일러스트로 재탄생시켰다. 빨간색 가마 케이스의 마스킹 테이프에는 가마와 함께 있는 모습, 하늘색 가마 케이스의 마스킹 테이프에는 의장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크기: 25mm, 5m  
소재: 종이 테이프  
판매가: 각 5,500원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 또는  
온라인 뮤지엄숍  
www.muds.or.kr

2025년 3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12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서화관	선사·고대관
고구려를 바라보는 창, 무덤벽화 고구려실(105호) 고고역사부 김태영	새해 송축용 그림, 세화 서화실(203호) 미술부 명세라	청동기시대 지배자의 출현 청동기실(103호) 고고역사부 이명훈
		세계문화관
		일본 회화 감상 일본실(310호) 디지털박물관과 이원진

813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역사의 길
백제의 금속공예품 백제실(106호) 미래전략담당관 나선민	양산 출토 반가사유상 불교조각실(301호) 세계문화부 권강미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 역사의 길 디지털박물관과 김진경
		역사의 길
		또 다른 전시 탁본 역사의 길 보존과학부 김종우

814회	18:00~18:30	19:00~19:30
서화관	조각·공예관	선사·고대관
조선시대 산수화 서화4·5실(202-4, 5호) 세계문화부 전인지	불복장과 불상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양수미	고구려 사람들의 집 고구려실(105호) 유물관리부 조용환
		역사의 길
		경천사 십층석탑 역사의 길 전시과 신소연

815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기증관	선사·고대관
선사인의 도구·돌도끼 이야기 청동기실(103호) 미래전략담당관 황은순	기증의 가치와 문화유산 기증2실(207호) 세계문화부 김경은	박물관의 역사, 시간 속 이야기 구석기실(101호) 문화교류홍보과 엄채현
		서화관
		조선시대 초상화 서화실(202호) 유물관리부 권혁산





webzine.museum.go.kr

#### 표지 이야기

228일간의 개편을 마친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기부터 고구려까지, 인류의 여정을 따라가며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다시 펼칩니다.  
박물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수만 년 전의 인류와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아득한 옛날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오늘 우리 삶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